

# 정책 전환의 기술

2012년 4월 27일에 iMFdirect 에 게시

작성자: [아늑 상,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국장](#)

선진국 경제와 “디커플링(탈동조화)”되는 아시아 경제의 오류에 대한 추가 증거가 필요하시면 이번 달의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참조하실 것을 권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콰라룸푸르에서 방금 발표된 이 새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아시아의 경제적 운명이 인접한 국경을 훨씬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여전히 심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지속적인 상호연결성을 설명하려면 2건의 발생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합니다. 유로 지역에서 최근에 합의된 정책 조치 이후에도 글로벌 경제 전망이 계속 밝고,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는 추가 징후가 있는 경우, 이러한 상황은 모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에 좋은 전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아시아 지역은 수요가 증가하고,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과열 압력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 지역의 금융 혼란이 전세계로 확대 및 확산되는 경우에는 아시아의 수출에 대한 선진 경제국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압박을 받는 외국의 은행들이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시아에 심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을 급격히 인상시킬 지정학적 위기가 이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에너지 및 식품 보조금으로 인한 예산 위험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 새로운 글로벌 국면

결론적으로, 아시아 의사결정자들의 정책은 대체로 새로 발생할 글로벌 국면의 방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금융 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그 후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이 지역의 리더들이 지속 가능하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다시 긴축으로 전환하고 계속 정상화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세계 경제 전망은 아시아의 경기 호전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금융 변동성과 연쇄 파급의 힘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따라서 발생 가능한 2 가지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정책상의 기술이며, 정책입안자들은 상황의 변동에 따라 정책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12년의 첫 몇 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전망은 좋은 편입니다. 신흥 아시아 지역에 대한 자본 유입이 다시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대부분의 현지 통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 평가절상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주로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이 정상화된 것에 힘입어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수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이 증가했으나, 이 지역에서는 거시경제 정책이 일반적으로 여전히 경기순응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국가별 차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외에도, 중기적으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장을 달성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투자 주도 성장에서 소비 주도 성장으로 계속 균형 조정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열린 IMF-세계은행 춘계 회의에서, 중국 인민은행의 이광 부총재는 중국의 쇼핑몰을 거닐기만 해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균형 조정은 중국에도 유리하고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인도의 경우는 투자환경의 개선과 무역통합 증진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며, ASEAN 경제국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중기 목표의 체계 내에서)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보다 광범위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저소득 국가들의 과제는 외국 직접 투자(다른 아시아 경제국들의 투자 포함)를 유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아시아의 기적에 동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의 경제적 운명은 국경을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에 여전히 심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 조정(필요한 경우)에 대한 다른 논점은 이것이 이 지역에서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의존성에 상관없이, 아시아는 경제의 형태를 결정할 충분한 여력과 능력을 계속 보유할 것입니다.